

도쿄 대학의 대학원 중점화와 학부교육 개혁

이원덕

국민대 지역학부 교수



1. 머리말

도쿄 대학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서 수많은 석학들은 물론 일본 사회의 각계 각층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배출시켜 온 명실상부한 일본 최고의 엘리트 연구·교육기관이다. 10개의 학부와 대학원 연구과, 1개의 독립 대학원 연구과 그리고 12개의 독립 연구소를 거느리고 있는 도쿄 대학은

세계 주요 대학의 변화와 동향

1. 도쿄 대학의 대학원 중점화와 학부교육 개혁

1996년 현재 4,110명의 전임교원(교수 1,316명, 조교수 1,207명, 강사 145명, 조수 1,442명), 7,991명의 교직원과 학부생 16,313명, 대학원생 9,580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교육과정은 학부 1, 2

학년의 전기과정(교양과정), 학부 3, 4학년의 후기과정(전공과정),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으로서 오늘이 있기까지는 역사적인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대의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스스로를 부단히 변신시키는 개혁이 뒤따랐다. 1980년대 이래 도쿄 대학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혁신, 정보화, 국제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

회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교육 체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80년대 후반 이후 도쿄 대학이 추진해 온 연구 및 교육에서의 개혁 방향을 대학원과 학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혁의 성과와 미결과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의 대학 개혁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대학원 중점화 개혁

1) 대학원 중점화의 요체

대학원 중점화라는 것은 학부교육 중시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도쿄 대학 교육·연구의 중심을 대학원 수준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교육·연구의 일층 충실화를 꾀해 나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이다. 대학원 중점화 시책은 대학원 연구과의 '部局化'로 불리는 조직 개혁을 통해 실현하였다. 대학원 연구과의 부국화란 지금까지 학부강좌의 전임과, 대학원 교육을 겸임해왔던 각 학부의 교원이 대학원 강좌의 전임이 되어 부차적으로 학부를 겸임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각 학부의 교원이 대학원 연구과의 전임교원으로 소속을 변경함으로써 대학원에 보다 중점을 둔 교육·연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2) 대학원 중점화의 배경

도쿄 대학은 그간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낸 것은 물론, 연구자 양성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학문연구의 고도화,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도쿄 대학 교육·연구의 국제 경쟁력이 점차 문제시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또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 정보화, 무국경(borderless)화

라는 대규모의 사회변동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받는 시대를 맞이하여 종래의 학문적 틀을 뛰어넘는 학제적·초역적인 연구 및 연구자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으로 기술혁신과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의 가속화를 배경으로 종래의 연구자 양성 역할에 더하여 사회인을 향한 고도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대학원 교육의 충실을 요구받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더욱 고도의 교육·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학원은 지금까지 제도로서의 독립성을 결여한 채, 시설·설비·인원 면에서 미흡한 상태를 유지하여 온바, 이에 대한 비판이 누차 지적되어 왔다.

도쿄 대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원에 중점을 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서서히 변모를 거듭해왔다. 예를 들어 학생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학원생의 비중은 현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학부 학생수를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대학원생의 수는 1975년에 52명, 1985년에 64명, 1990년에는 70명 그리고 1995년에 97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시설·설비 그리고 대학원 전임교원의 점에서는 학부와 독립된 대학원제도라고 부르기에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다시 말해 대학원의 교육·연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설비, 인원 면에서는 대학원에 중점을 둔 시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3) 대학원 중점화에 따른 조직 개편

이러한 배경 아래 도쿄 대학에서는 1987년부터 평의회 산하에 대학원문제 간담회를 설치하여 대학원 중점화 개혁안에 대한 검

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개혁을 실현해왔다. 그 결과 1991년의 법학부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의학부와 약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부가 이른바 대학원 部局化를 완료하였다. 대학원 중점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쿄 대학은 다음의 세 가지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첫째, 대강좌제의 도입을 통한 교원조직의 탄력화이다. 교원 정원의 증대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의 고도화와 학문의 학제화·초역화에 대학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교원조직 편성이 요구된다. 이에 대부분의 부국에서는 학부 교원의 대학원 교원으로서의 전환과 동시에, 소강좌제를 단위로 하는 조직을 벗어나 한 강좌 내에 복수의 교수를 배치하는 대강좌제를 도입하였다. 이 결과 도쿄 대학 전체의 강좌수는 1990년 613개에서 1995년에는 346개로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한 강좌당 교원수는 교수 2.83, 조교수 2.48, 조수 2.18명으로 각각 대폭 증가하였다.

둘째, 각 부국에서는 학부 교원에서 대학원 교원으로서의 전환과 동시에 대강좌제를 구성하는 기초단위로서 '전공분야'로 불리는 단위를 만들어 각 단위의 책임자를 교수로 충당하는 조직 개편을 행하였다. 즉, 종래의 소강좌제보다 교수 정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연구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공분야의 증설과 분야, 그 자체의 유연한 설정이 행해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교수 정원, 조교수 정원, 조수 정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 교수 정원과 조교수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대신 조수의 정원은 줄어들게 되었다.

셋째, 교외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긴밀한 제휴관계를 맺어 대학원 교육·연구의 폭을

늘려 대학원 학생에 대한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현재 도쿄 대학은 41개의 연구기관과 제휴관계를 맺어 54명의 겸임교수를 활용하고 있다.

4) 대학원 중점화의 효과

도쿄 대학의 대학원 중점화 개혁의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대학원 교육의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대학원 학생수의 추이를 고찰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해당 연도 대학원 입학자수 기준으로 볼 때, 1980년에는 1,600여 명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3,200여 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또 수여학위 수를 기준으로 볼 때, 1957년부터 1990년까지 33년간 불과 66개의 박사(과정박사) 학위가 수여된 데 비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거의 2배에 육박하는 115개의 박사(과정박사) 학위가 배출되었다. 종래 '석학'에게 부여되는 명예칭호로서의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던 문과계의 박사학위가 대학원 중점화 개혁과 더불어 점차 그 의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원에서는 논문지도 과목을 별도로 설치하여 학위논문 지도체제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대학원 교육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커리큘럼의 개혁과 지도체제의 강화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는 대강좌제에 의해 전공분야가 증설되었으며, 교수와 조교수의 증가로 석사과정의 수업 과목수가 현저히 늘어났다. 실제로 석사과정의 수업 과목수는 1990년의 90과목에서 1995년에는 145과목으로 대폭 증대되었다. 또 수업 형태도 다양화되어 복수의

교원에 의한 옴니버스 방식의 수업도 도입되고 있다.

인문·사회계에서는 종합지역문화와 같은 전공의 재편성, 다분야 교류 프로젝트 연구의 실시, 전공 공동연습, 코스 공동강의 등을 채용하여 영역간 교류를 높임으로써 대학원에서의 커리큘럼의 충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에는 '사생관과 생명윤리', '아시아와 일본의 지역교류', '창조의 장과 텍스트의 전승', '성·계급·인종'을 구체적인 주제로 하여 각각의 주제에 연구과 소속 교원 3~4명, 제휴·겸임교원 3~4명, 박사과정 학생 10명 안팎 등 모두 15~20명이 참가하여 교육·연구를 하고 있다.

한편, 대학원 중점화 개혁은 학부교육에도 커다란 충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학부 3~4학년의 후기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많은 과목을 대학원 강의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학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면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부 학생들이 대학원 강의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원 진학 후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3. 학부교육의 개혁방향

1) 도쿄 대학의 학부교육

일반적으로 학부교육이란 하나의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대응하는 전문직업 준비를, 대학 자치의 기초적 단위인 학부의 틀 안에서 행하는 교육을 일컫는다. 이러한 학부교육의 형태는 전전 舊制 도쿄제국대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으로서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의 대학, 특히 독일 대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인 이념, 형태, 내용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앵글로 색슨계 국가의 고등교육에 보인다. 이른바 교양교육(liberal arts) 형의 교육이다.

도쿄 대학에서는 전후 개혁에 의해 新制 대학이 되었을 때, 교양학부를 설치하여 전기과정의 교육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교양교육 모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 또 교양학부의 후기과정에도 그러한 모델이 강하게 영향을 준 것이다.

2) 환경의 변화

학부교육의 핵심은 학문연구의 첨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원이 첨단적 연구 성과와 그에 이르는 과정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데 있다. 한편, 학생은 그러한 교원의 가르침에 따라 학문적인 탐구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학문에의 관심을 진작시키고 논리적인 사고, 미지에의 탐구정신, 자성적 사고 등 정신적·인격적인 도야를 받는 것이다. 학부교육에서 교원은 학생이 장래 어떠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가에 관한 교육의 도달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고전적인 교육 이념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온 도쿄 대학의 학부교육은 신제 대학 설치 이후 전개된 커다란 사회환경의 변화를 맞아 새로운 위치 설정을 위한 고민을 안게 되었다.

첫째, 학문의 고도화·세분화에 따른 변화의 압력이다. 즉, 학문의 고도화·세분화에 의해 첨단지식 그 자체와 첨단적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밟아야 할 기초지식과의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학부교육을 어떠한 수준에서 진행해야 하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둘째, 학부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습득과 전문직업과의 상관관계가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학 졸업생은

특정한 지식, 기술과 연관된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활동내용에 대응하여 기업 내에서 구체적인 지식기능을 축적함으로써 생산성을 발휘하는 회사원이 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셋째, 고등교육의 대중화 현상이다. 오늘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균일화된 수험제도에 잘 훈련된 일종의 게임감각이 뛰어난 사람일 뿐 지적·인격적 성숙도와는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 학부교육의空洞化

위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학부교육의 고전적인 이념과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모습과의 괴리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학생과 교원 사이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의 대학에 대한 신뢰는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이 일본 대학교육의 현주소이며 도쿄 대학 학부교육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학부교육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학생, 교원 그리고 사회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째, 학생 측의 대응이다. 연구를 장래의 희망으로 하는 학생은 대학원 진학 선발의 고도화에 의해 넓은 시야에서의 학습보다는 폐쇄적인 전문성의 추구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직업 자격시험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는 학부교육을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 취득에 관심을 가질 뿐, 지식의 체계적 학습에는 열의가 없으며 각종 서클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었다.

둘째, 교원 측의 대응이다. 교원들은 대부분의 노력을 전공분야 연구에 쏟고,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여 많은 학생을 소외시키고 있다. 특히

인문사회계 학생의 경우, 3학년까지 필요단위를 취득하고 4학년 때는 취직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학부의 후기과정(전공과정) 교육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학 밖의 사회가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매스컴, 경제단체 그리고 기업의 인사담당자 등은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적 준비에 대해 명확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일본의 기업이나 정부기관은 종신고용체제 속에서 스스로의 조직의 틀과 그 안에 설정되어 있는 경력에 적합한 인재를 추구해 왔다. 즉, 일본의 사회는 체력, 협조성 등의 자질을 갖춘 도쿄대 졸업생이 중요할 뿐, 학부에서의 지적 훈련을 문제삼지 않는 풍토가 지속되어 왔다.

4) 학부교육 개혁의 필요성

학부교육의 공동화 현상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생은 졸업 후에 기대에 상응하는 진로를 걸게 되고, 교원은 학문 후계자를 어느 정도 양성하였으며, 기업은 선별된 학생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학부교육은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그런데 왜 지금 학부교육이 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는가? 학부교육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대학 내부의 자기반성에서 나왔다고 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제기되었다.

경제의 국제화, 정보사회화, 과학기술의 고도화,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일련의 움직임은 사회활동에서 지식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오늘날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 혹은 정부기관 내부에서 축적된 조직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지적 능력이 개개인에게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의 기반을 형성하는 곳으로서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이는 단지 도쿄 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대학 전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는 유럽, 미국 등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말하자면 세계적인 추세로서 사회에서의 지식의 역할 변화가 대학교육의 성격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 대학의 경우, 대학원 중점화 개혁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학부교육의 위상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부교육은 그렇지 않아도 空洞化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지식사회의 요구와 대학원 교육의 강화로 인해 새로운 위상 설정의 요구를 받고 있다.

5) 개혁의 방향

실제로 도쿄 대학의 각 학부는 학부의 실정에 맞게 교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 수업내용을 명시하는 강의계획서 배포, 시청각 수업 등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학부교육의 소도구 개혁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다 원초적인 문제제기로서 도쿄 대학에서는 학부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안으로 두 가지 방향이 제기된 바 있다. 하나는 고전적인 학부교육의 이념을, 연구 혹은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철저하게 실현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부의 후기과정(전공과정)을 4년간으로 하여 학

사과정을 전부 6년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일부 학부에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국제적인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학원 중점화 개혁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방향으로, 도쿄 대학의 학부교육 전체를 교양교육형 교육으로 이행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즉, 전공을 불문하고 4년간에 걸쳐 교양교육 중심으로 학부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현재로서는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도쿄 대학의 학부교육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과제로 남겨진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전기과정(교양과정), 후기과정(전공과정)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상기의 空洞化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부교육의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도쿄 대학은 학부교육에서 특정 전문영역의 지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문영역의 知의 총핵을 이루는 지식과 논리체계의 기초구조를 형성시켜주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합의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專門知의 기초구조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며 또 그것을 학생에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도출된 합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도쿄 대학의 학부교육에 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이 소리높게 외쳐지는 현실과는 달리, 실제로 개혁 프로그램의 실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맺음말

이상에서 '80년대 중반 이래 도쿄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향을, 대학원 중점화 개혁과 학부교육의 개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기본적으로 도쿄 대학의 개혁은 일본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변신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혁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대학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닌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대학원 중점화로의 이행이야말로 일본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학생과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도쿄 대학이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도 서울대를 연구중심 대학으로 재편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정 대학에 국제적 수준의 연구거점을 설치하여 학문적인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인정되는 만큼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라도 학부의 규모를 줄이고 그대신 대학원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대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도쿄 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학부교육의 문제점은 사실 우리 대학의 학부교육의 개혁을 생각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의 고도화, 정보화, 경제사회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그에 걸맞은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경우 학부교육은 그야말로空洞化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적 연구공동체의 일부로서 기능하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교육, 배출시키는 역할을 우리의 학부교육이 얼마나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원덕/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여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역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연구관심 분야는 현대 일본 정치외교 및 한일관계,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로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공저), 『한국과 일본』(공저) 등이 있다. 그밖에 일본정치, 한일관계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